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3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윤석열 후보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본이 없는 후보에 나라 맡길 수 없다”

민주도당 선대위
전북 방문 윤석열
발언 두고 맹비난

“경제적 어려움 겪는 국민·자유 위해 헌신해온 사람
싸잡아 모욕... 엉터리 자유 입에 올리지 마라”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선후보 선출위원회(이하 선대위)는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날 전북대 방문과 관련해 “민주주의 정치 리더십의 기본이 없는 후보에게 나라 맡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선대위는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처음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자유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을 싸잡아 모욕하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가 알지 못하는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답변에서 구직 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대학 1~2학년이 졸업할 때쯤이면 생길 것 같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선대위는 이어 “윤석열 후보의 비뚤어진 가치관을 표현하는 망언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윤 후보가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들어 가난에 대한 전박

한 사고관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또 “윤석열 후보가 전북대학교 첫 일정으로 5·18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표지석을 참배했다는 소식과 위의 망언을 동시에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꼈다”면서 “윤 후보는 깊은 제대로 구사할 능력도 없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조차 모르는 권력형 정치 검사의 표본임을 다시 한번 본인 입으로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대위는 “그런 후보에게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윤석열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엉터리 자유를 입에 올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익산,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

한병도 의원 “명실상부 문화도시로 도약... 지속가능 발전에 더 노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은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3차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익산시는 작년 말 3차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1년간 4개 분야 19개의 예비사업과 10개의 연계사업을 추진했으며, 익산역과 귀금속단지 등에서 진행된 현장실사와 인터뷰도 충실히 수행했다. 이어, 이달부터 최종발표회 프리젠테이션과 문화도시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총 16개의 예비문화도시 중 6개 지자체만 선정되는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역사로 다(多)이로움’이라는 포용의 가치를 새로운 도시가



치로 제시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지원되는 1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통해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 익산’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도시 문화브랜드-보석문화도시’, ‘문화도시 생태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백제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로서의 지역생태력 강화는 물론이고,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경제 유발 효과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법정문화도시 최종 지정은 익산시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얻은 값진 성과”라며 “개인적으로는 지난 총선 당시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 의원은 “히로써 익산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앞으로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익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노후 슬레이트 처리 국비 확대 지원을”

전북시군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 시의회 강동화 의장)는 23일 일실군의회에서 제269차 월례회를 열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국비 확대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집중 보급했으나, 최근에는 주민 건강과 환경 등을 위협하는 요소로 철거 대상이 됐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도비 지원이 낮아 자체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축산농가와 비주거 슬레이트 처리는 지원 규모가 적고 특히 대규모 축사의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액 및 보조 지원율을 상향 조정과 ▲슬레이트 처리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안정적인 재정여건은 필수적”이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건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민주 선대위 경제특보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특보로 임명됐다. 유 부의장은 지난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명의의 대선후보 선출위원회 경제특보 임명장을 받고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과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유 부의장의 경제특보 임명은 전주 시의원 두 번과 전라북도의원 두 번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해 온 것 외에, 30여년간 기업경영 등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유 부의장은 “이재명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발맞춰 반드시 민주당의 대선승리를 이끌어 내고, 그간의 경험을 살려 전주권 100만 경제특별시 조성을 통해 성장하는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윤상 기자

“분당과정 상처 대선승리로 치유해야”

김윤덕 의원, 복당 ‘문화개방’ 언급... 윤석열 후보 관련 “내공·밀바닥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선거운동이 진행될수록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약점이 보일 것”이라며 “윤 후보의 내공과 밀바닥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지난 22일 전북을 방문해 “빈곤하고 못배운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민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집값 문제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독자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당의 공조작이 아닌 대선 후보들의 개별적인 외곽조직을 끌어모으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자발적 지지자들이 중심이 된 조직을 끌어안은 ‘조직혁신단’의 총괄단장을 맡은 김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조직인 미래경제단, 정세균 전 총리의 자생조직을 모은 미래희망단과 함께, 당의 공조작과 융화해 대선승리의 용광로가 되겠다고 밝혔다. 경선에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으로 나눠졌던 조직을 하나로 묶기 보다



김윤덕 의원이 2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0차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는 각자의 조직에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윤덕 의원은 “공조작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공조작과 함께 촘촘하게 엮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 인력의 다양한 조직들이 조직분부에 들어오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어 앞으로 SNS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민주당

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만, 조금더 높이는 게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면서 “분당과정에서의 상처를 대선승리로 치유하는 것도 민주당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선심사단계나 경선과정에서 생겼던 갈등이나, 오히려 탈당한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원상복합해야 한다는 점을 당대표와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국힘 도당 ‘민주당의 윤석열 규탄 ‘발언 왜곡’ 흑색 선전 대응의사’

최찬욱 도의원, 소상공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회(회장 임규철)로부터 지난 22일 감사패를 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회는 “최찬욱 의원은 늘 지역주민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솔선수범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정의 다방면에서 소상공인의 위 기구책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기에 올해 협회 차원에서 감사패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찬욱 의원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부터 되살아나야 하지만, 현재는 버티는 것조차 힘든 지경까지 이르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제는 코로나19를 넘어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함께 있어 전북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원대한 꿈! 원광대에서 원대로 이루자!

2022학년도 정시모집 → 2021. 12. 30.(목) ~ 2022. 01. 03.(월)

2022학년도 신입생 특별혜택

전 노선 신입생 1년간 무료 (세종, 대전, 개풍, 논산, 전주, 군산, 김제, 정읍, 부안)

통학 버스 무료

전 노선 신입생 1년간 무료 (세종, 대전, 개풍, 논산, 전주, 군산, 김제, 정읍, 부안)

기숙사 합격 보장

기숙사 입사 희망 신입생 우선배정 (기숙사 10개동, 3,737명 수용가능, '2020대학정보공시)

최초 합격자 50만원

수시 및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첫 학기 수업료 50만원 지원 (군사학과, 원광고교과, 의·약학계열 제외)

상담 및 문의전화

학생부총합(의·약학·포항) 063. 850. 5266
학생부교과(일반) / 정시모집 063. 850. 5262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